



복원된 증세도시, 바르샤바

김 윤 기

無에서 되살린 「스타레·미아스토」

세계에서 가장 싸움 좋아하는 나라, 소련과 독일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폴란드다. 세계의 대전은 모두 폴란드 땅에서 벌어졌다. 2차 세계대전도 예외가 아니다.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는 2차 대전때 철저히 파괴된 나라다. 남의 나라 전쟁이 이 나라에서 벌어져, 이 나라를 결단 낸 것이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이 있다.

바르샤바는 옛 모습과 똑같이 재건되었다. 바르샤바의 중심부는 「스타레 미아스토(Stare Miasto)」다. 이곳은 「폴란드인의 뉘」이 숨어 있는 곳이다.

온 국토가 모두 파괴되었지만, 바르샤바 시민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스타레 미아스토의 복구였다. 「폴란드인의 뉘」이 먼저 제모습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 설계도의 원본이 있을 수 없다.

바르샤바 시민들은 각기 사진과 그림엽서, 신문조각 등 옛 모습을 되살릴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모두 가지고 모였고, 그것도 없는 시민은 「기억력」만 가지고 나와서 참여했다. 그리고 『이곳엔 이런 발코니가 있었다』 『이곳엔 이런 창문이 있었다』 『이곳엔 이런 손잡이와 계단이 있었다』 식으로 의견들을 모았다.

이렇게 해서 재건한 도시가 바르샤바이다. 정말 묘하게도 바르샤바는 원형 그대로 재현되었다. 이것을 보고, 세계의 건축가들은 「바르샤바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바르샤바 시민의 애절한 복구의욕에 소련도 한술 거들기로 했다. 소위 37층짜리 거대한 「문화·과학 궁전」을 지어 바르샤바 시민에게 기증한 것이다. 바르샤바 중앙역에 내리면 바로 정면에 우뚝 앞을 가로막고 선 건물이 이 궁전이다.

방이 3,289개나 되는 이 궁전안에는 과학아카데미, TV방송국, 문화교류협회, 극장, 콘서트홀, 바르샤바대학분교 등 바르샤바의 대표적 문화과학기관이 들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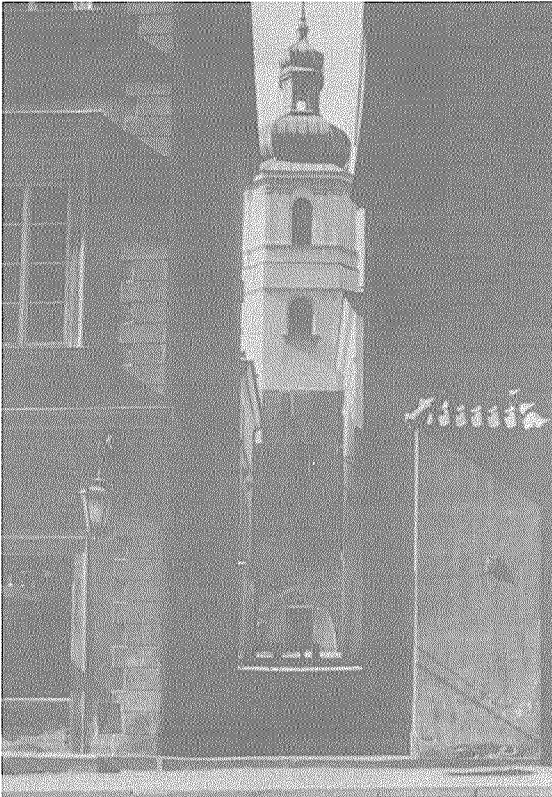
그런데 바르샤바 시민은 이 건물을 가리켜 「바르샤바의 무덤」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바르샤바 시민에겐 웅장한 새 건물이

아니라 작고 보잘 것 없어도 옛모습 그대로의 건물이 더 아쉬웠던 것이다.

바르바칸에 둘러싸인 구시가

스타레·미야스토는 바르샤바 구시가지의 중심부다. 돌을 깔 길, 연도엔 가스등이 서있고, 레스토랑, 카페가 줄을 잇고 있다. 완전한 중세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시가지다.

시장광장 주변은 역사박물관과 붉은 벽돌집들이 둘러싸고 있다. 3백년의 전통을 가진 술집 「후키엘(Fukier)」, 영화에도 나



◀ 14세기에 세워진 성마르틴사원 중앙의 종탑은 바로크식인데, 양쪽 건물은 고딕식이다.

오는 유명한 레스토랑 「크로코딜(krokodyl)」도 이 광장에 있다.

이 구시가지를 한바퀴 빙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다. 이곳에서는 「바르바칸(Barbakan)」이라고 부른다. 이 성벽이 시작되는 곳에 바르샤바의 심벌인 인어상이 있다. 그런데 이 인어상은 한손엔 책, 한손엔 방패를 들고 있다. 하도 많은 수난을 겪었고, 그 수난을 슬기로 극복한 것을 상징하는 것일까.

바르바칸 성벽문을 나서면 신시가지다. 여기서부터는 길도 넓어지고 현대적인 건물이 서 있다. 라뎬을 발견한 퀴리부인의 생가(지금은 박물관)가 이곳에 있다. 넓은 신시장광장(노베·미야스토)에는 聖사크라멘트 교회가 있다.

7자로 된 바르바칸의 남쪽 성벽으로 나오면 잠코비광장이다. 이 광장 한복판에 지그문트3세의 기념비가 있는데, 그는 폴



◀
구시가 속에 있는
노뫼미에스카街 거리
풍경. 좁은 골목,
옛모습 그대로의
상점들이 인상적이다.

란드의 수도를 크라크후에서 바르샤바로 옮겨온 장본인이다. 광장 한 옆으로는 왕궁이 있다. 이 기념비와 왕궁도 2차대전 때 파괴된 것을 복원한 것이다.

폴란드인의 복원기술은 특출하다. 바로크·크라식형의 라지뷔우 저택, 호화로운 내장의 티시키테뷔치 저택, 19세기 오페라극장, 쇼팽 콘서트가 열리는 오스트로구스키館(쇼팽 박물관), 「3개의 십자가 광장」에 세워진 제정시대 양식의 聖알렉산드로사원, 와쟁키공원의 연못에 떠있는 수상궁전과 꽃밭까지 완벽하게 복원된 옛것들이 다.

쇼팽의 심장이 묻혀 있는 교회

왕궁에서 남쪽으로 뚫린 크라크후街는 바르샤바의 메인스트리트이다. 이 연변에 빅토리아 광장을 비롯, 바르샤바대학, 聖십자가 교회, 지동설을 제창한 코페르니쿠스상, 당분부, 국회의사당 등이 있고 와쟁키공원도 있다. 聖십자교회 기둥에는 쇼팽의

심장이 묻혀 있다고 해서 음악애호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빅토리아광장과 붙어 있는 사즈키공원에는 무명용사의 묘가 있고, 낮 12시에는 매일 의장대의 열병식이 열린다. 사즈키공원은 시민들의 휴게소로 미니스커트를 입은 애뎀 아가씨와 젊은이들의 데이트 코오스이기도 하다.

사즈키공원에서 남쪽으로 뻗은 마르샤우코브스카街 일대는 바르샤바의 변화가이다. 호텔, 항공사, 백화점, 카페, 레스토랑 따위가 이 거리에 집결해 있다.

헌법광장을 지나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다 보면 17세기 말 소비에스키3세가 세운 여름별궁 빌라누브궁전이 있다. 프랑스 벨사이유궁에 버금간다는 바로크풍의 궁전이다.

프랑스식 정원도 유명하다. 이 정원에는 여름에는 「빛과 소리의 경연(競演)」이 벌어지는데, 중세시대를 모방한 무대에서 기사(騎士)와 귀부인들의 연기가 펼쳐진다. 그런데 이 궁전 입장권에는 극장처럼 입장

▶
 와젠키공원의 수상궁전
 폴란드 최후의 왕
 스타니스와프2세(재위
 1764~1795)가
 이용하던 곳.



시간이 정해져 있다. 시간에 맞추어 가면 안내원이 대기, 그룹으로 궁내를 돌며 설명해 준다.

프라하에도 있었던 겐트가 바르샤바에도 있다. 나치가 만든 유대인 특별수용지구인 바르샤바 겐트에선 유대인들이 무력대항을 하다가 실패, 전원 가스실로 보내진 비극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지금은 그 자리가 광장이 되고 피라밋형의 기념비가 서 있다. 전 서독수상 브란트가 폴란드 방문시 이곳에서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사죄한 곳이다.

우리나라를 닮은 민족 수난사

바르샤바가 폴란드의 수도가 된 것은 1595년. 별로 오랜 옛날이 아니다. 그러나 바르샤바의 운명은 수난 비극의 연속이었다. 17세기 스웨덴의 침입을 시작으로 17세기말에는 페스트의 대유행, 그뒤 두차례에 걸친 러시아의 침공 등 수없이 많은 괴

침에 시달려야 했고, 1·2차 세계대전의 격전장이 되기도 했다.

이런 짓밟히는 고난(苦難)과 역경속에서도 폴란드의 민족정신은 말살되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다져지면서 나라를 지켜왔다. 폴란드의 수난사는 바로 우리 한 민족의 수난사와 닮은 점이 있다.

그런데 바르샤바 시민은 그들의 도시를 재건하면서 원형을 되찾아 민족얼을 부추겼다. 으레 파괴된 도시의 재건 때는 넓은 도로부터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바르샤바는 그렇지 않았다. 차도 못다니는 좁은 골목길도 옛날 모습대로 복원한 것이다.

서울은 6·25 전난으로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면서 원형 보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부서지지 않은 주택까지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헐어 없애고 신도시를 만들었다. 이점에서 우리는 바르샤바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2]

(필자=해외의학교류회장. 최신행행정보 발행인)